



평가원 파헤치기: 2021 9월 분석

9월 모의고사 분석

총평 Comment: 지역지리 6문제. 심각하게 평가원이 지역지리를 6.9평에 다 풀고 판거 내겠다는 심보가 아닌 이상에 지역지리에 힘준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느낌이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시험이지만 주는 바가 없지는 않는 시험지. 6.9평이 올해는 꽤나 쉽게 나왔기 때문에 수능은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 하자. 그렇다고 인현강 선생님들의 모의고사가 30점대~40점 초반이 나왔다고 우울해하지도 말도록 하자. 원래 어려운 것이고, Refine도 잘 먹히지 않는 시험들이 많다. 9평에서 얻어갈 건 역시 지역지리. 그리고 일반성.

#1.

GIS 관련 문제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념으로 냈다고 해서 점수 분배하는 GIS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자.

ㄷ. 중첩 분석은 최적 입지나 경로 선정 등의 공간 의사 결정에 활용 가능하다. 당연한거다. 이게 틀릴 리가 없고 틀리지 말라고 나.르이 선지에 없는 것이다.

#2.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평가원이 기초적인 자연지리 파트에서 과도한 해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헛갈릴 '수도' 있는 것들을 선지에 내긴 하지만 결국 정오판단은 깔끔한 선지로 낸다.

② 황해인 것 체크했어야 한다. 서해안은 최종빙기에 육지와 이어져 있었다.

⑤ 기출분석을 했다면 너무나도 잘 보이는 선지. 사빈 사구 비교와 사빈 갯벌 비교는 해안 지형에서 너무 많이 한다. 사실 필자는 눈썹기로 5번 보고 찍고 넘어갔다.

#3.

나온 곳은 의령, 김해, 부산. 의령을 알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 의령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심지어 저 지도를 안 줘도 풀 수 있다. 당연한거다.

우리는 항상 루틴대로 대도시, 교외도시, 촌 도시로 풀면 된다. 수도권이든 부산권이든 대구권이든 다 그렇게 적용해서 풀어 제끼면 되는 것이다.

(가)- 1차 많음=강촌, (나)-애매함=교외도시 (다)-3차 많음=대도시.

① 원래 인구 밀도를 묻는 것은 유명 도시들끼리 인구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도를 주고 땅덩어리 크기를 보고 인구 밀도 비교를 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슷한 땅덩어리라 쳤을 때 촌이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작지 않을까? 지도 안 보고 쪽 내려가서 5초컷 해도 문제 없다.

⑤ 뭐 이 선지 정도가 왜 오른쪽에 지도를 줬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다.

#4.

낙안 음성 외워두자. 순천 키워드다. 이거 평가원이 언제든지 메인 키워드 안 낼 수 있다고 예고한 것 같다. 순천하면 순천만 갯벌 람사르 습지 낼텐데 그걸 뺐다. 서브 키워드들 외워두자. 그리고 국가 정원 있는 것 모르는 학생들 반성하자.

이 정도로 키워드 주면서 물었으면 수능 때는 세 곳 찍는게 아니라 전남에 여러곳 찍어서 세 곳 넣는 것 물었을 것이다. 즉, 난이도가 배가 된다.

제발 지역지리 소홀히 하지 말자. 어렵게 나와도 할 말이 없다.

#5.

뭐 너무 쉬운 문제다.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들은 이렇게 선지 하나 판단으로 끝낼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④ 도시화 하면 녹지 면적 감소하고 콘크리트 늘어서 우천시 하천 최고 수위가 낮아지는게 아니라 높아진다. 물은 불어나는데 빠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⑤ 복원사업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직강화 공사가 아니라 콘크리트 제거와 녹지화로 이뤄지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6.

자연 재해 문제는 발문에 종류(지진, 태풍, 황사) 나온거 보고 바로 내려가자.

거기다 기공사에서도 언급한 키워드 문제다. 키워드 하나 따는 순간 바로 황, 태, 지 적어야 된다. (가)=흄비 (나)=큰 바람 (다)=담벽 무너짐,바닷물 요동

② 북서 계절풍이 탁월한건 겨울이다. 겨울에 태풍 불지는 않는다. 한파와 폭설이 그 때 일어난다.

⑤ 기후적 요인: 웬만한 것 다, 지형적 요인: 지진.

#7.

발전 설비 분포 준 문제이다. 발문에서 원 화 수 중 하나인 것 확인하고 바로 내려가서 눈 흘기로 처리 하면 된다.

A=경기 충청, 경남=화력

B=경상 전남 해안가=원자력

C=강원 충북 경북(현장에서는 나머지로 처리 OK)=수력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된다.

① 건설비용은 원자력이 최고다. 생각해보자. 그 위험한 원자를 분열시켜서 발전하는 발전소인데 단순히 석탄 때서 전기 만드는 것이나 물 떨어질 때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것보다 싸까? 그럴 리가.

③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선지다. 원자력은 웬만해서는 연중 내내 돌리고 있다. 기억하자. 반면 수력은 비 안오면 $\pi\pi$ 다.

#8.

사진 보고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다.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싶다. 그래서 센스쟁이들은 바로 중간에 위치 보고 해결했을 것이다. 위치를 보면 볼 것도 없다. A/B는 용암대지, C,D는 제주 화산지형이겠지.

⑤ 이 정답선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D가 경사가 완만한지 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오름이랑 같이 있으니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산 정상부라면 유동성이 큰 용암이 아니라 작은 용암이 되기에 되게 결정적인 단어를 주고선 사진이 불친절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며 나머지 선지가 너무 아니기에 100% 정답.

#9.

기후 알고리즘으로 풀자. 특수 값인 최다우지 최소우지를 거르자. 딱 봐도 최다우지인 (라)가 원산일 것이고, 최소우지인 (다)가 청진일 것이다. 그럼 남은 (가)와 (나)는 위도가 다르므로 최한월 기온으로 판단을 해도 되고, 연교차로 판단을 해도 된다. 더 춥고 연교차 큰 (가)가 희천(지명 몰라도 됨)이고 (나)가 평양(인거 정확히 몰라도 됨)일 것이다.

이후 선지 처리는 정말 쉽다.

이런 복합 그래프를 해석 못하는 경우는 없길 바란다. 이건 한지에도 나왔던 유형의 그래프이고 누적 강수량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히 주석이나 그런 곳에 힌트를 줄테니 걱정은 하지 말자. 이래서 쌍지러가 유리하긴 한 것이다.

#10.

강원도 대표 도시들만 냈다.

강릉은 정동진, 단오제

평창은 올림픽, 양떼 목장

원주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11.

이제 우리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느낀건 이제 평가원이 학생들이 도시 복합비교 문제를 정말 잘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도심vs교외vs복합이었다면, 이제 도심vs교외vs복합vs공업이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이유는 4C3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위치 다 알고 있지? 묻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4개 내버리고 딱 비교하라면 고3 현역들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옆에 자료를 주고 쉬운 선지 비교를 시켰다.

이제 외웠을 것이라 믿는다. 복합은 강남 or 영등포 낼 것이고 공업은 구로 or 금천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오른쪽 서울지도는 안 봐도 풀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하고 왼쪽으로만 처리해보자. 이제 수능에서는 서울시 찍고 복합복합하게 비교시켜도 할 말이 없다 인정?.

#12.

팁 하나. 위치 좀 보자. 위치 보면 어딘지 바로 안다. 하나는 저 위 양구 쪽이고 하나는 대관령 쪽이다. 각각 대표 지역만 나왔다. 물론 기공사에서 설명한 대로 등위도의 차이를 보고 판단해도 ok. 근데 나라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눈알이 중간의 위치로 갈 것이다. 자연지리 문제에서 위치 주는건 리얼 개똥큐다.

이 문제 선지 공부 빠르게 한 번 훑어 주도록. 키워드 묶어가면서.

#13.

농업에서 이렇게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 물으면 학생들이 많이 당황한다. 그래서 일반성이 중요한 것이다. 소비량 추이 까먹었어도 우리 요즘 식습관을 생각해보자. 밥은 갈수록 잘 안 먹고, 채소는 다이어트 한답시고 왕창 먹고 심지어 햄버거 피자에도 채소 있다. 과일은 그냥 저냥 잘 먹고 댕기기는 하지만 옛날을 생각해보면 쌀만큼 먹고 댕기지는 않았다.

수능은 백프로 ABC (가), (나), (다) 뚫을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양쪽 자료 주면서 똑같이 ABC? 그럴 리가 없다. 현역이들을 위한 배려다.

#14.

EBS 직접연계 문항. 그냥 EBS 문항 그대로 복붙했다. 물론 EBS 문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뜯금포로 내면 모르니까 축제 포스터를 다 보여주고 축제 내용까지 적어줬다. 친절 그 자체. 수능이라면 포스터는 작게, 그리고 백지도에 위치 찍어서 축제 종류 추론 시키고 날짜도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④ 선지를 보자. 필자가 기공사에서 그렇게 강조한 기후 알고리즘을 대놓고 냈다. 기온의 차이는 뭐가 만든다? 겨울 온도가 만든다.

#15.

전형적인 지역지리 문제. 선지가 너무 쉽다. 이상한 문제다. 너무 현역 배려 느낌.

실제 수능은 훨씬 헛갈리게 낼 것이다. 17수능 킬러인 지역지리 문제 참고하시길.

그리고 충청도 지역지리 문제 나오면 개꿀팁 하나 남기자면(이미 쓰고 있을 듯?)

맨 왼쪽 위부터 오른쪽 끝까지 태서당아천진음충제단 순이다. 이거 그냥 통째로 외우자. 개꿀이다.

#16.

지역지리 + 인구 결합 문제

이 번에 인구파트에 다문화가 따로 빠지고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낸 문제일 것이다. 사실상 지역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위치를 보고 도시 특성 추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봉화는 몰라도 된다. 그런데 화성이랑 대전은 알아야 한다고 본다.

(가)는 근로자가 많으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화성일 것이고

(나)는 유학생이 많으니 대학 있고 연구단지 있는 대전일 것이고(연구 관련 지표 서울 다음 짱맨)

(다)는 결혼 이민자가 많으니 농촌일 것이다.

아 물론 진짜 지리 고수는 오른쪽 지도 안 줘도 근로자 비율 보고 도시 특성 맞춰서 선지 올킬 가능하다.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는 그럴 수 있도록 하자. 다 일반성이다.

#17.

비문학 독해 문제. 첨단 산업 도시, 도농 통합시, 전자 산업을 보고 추론하면 된다. 다행히도 유명한 도시들 위주로 내줘서 문경 새재 있는 문경 거르고, 문화유산 있는 안동 거르고, 대구의 교외도시인 경산 거르고, 제철공업 짱인 포항 거르면 남는게 하나밖에 없다.

지역지리 이제 키워드 뺏세게 메인 키워드 빼고 내도 맞힐 수 있게 하자. 썩하다. 6.9평 둘다 평가원이 예고하는 것 같다.

#18.

권역별 인구는 이제 외워두자

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강원/제주권이다.

원래 호남이 좀 더 많았는데 충청권이 충남 북부지역이 완전 순수입에 세종도 초순유입이라서 인구를 제겼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자료를 봤을 때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면 나한테 주어진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이니까 애매한 충청권 빼고 농업 많은 호남 vs 인구 서비스업 짱 수도권 구도로 보자 하고 농림어업 많은 A=호남, 가정용 많은 B=수도권 처리 하는게 좋다. 제조업 건들기에는 셋 다 제조업 하니까 헛갈릴 수 있으니까.

#19.

서울 광주 울산이다. 너무 쉽다 진짜.

주석 잘 보자 출하액 기준 상위 3개만 표현했다.

광주는 광(光)주(州) 빛 고을= 자동차1위 +전자, 광산업.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헛 생각 안 하고 (나)에 1위를 석유 준 것 보고 울산 바로 처리를 하고, 광주랑 울산은 자동차를 둘 다 하니까 A에 자동차 넣고 나머지는 자동처리 시키는 것이다.

평가원이 얼마나 착하나면 이것도 모를까봐 주석에 光 산업의 소재 부품이라고 적어줬다. 참.. ㅎㅎ

#20.

키워드 이름 기억 안 나도 된다.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키워드 기억 안 나면 그냥 슈퍼 vs 김앤장(국내 최고 로펌) 적고 풀자. Why not.

6/9 총평: 지역지리 뻥세계 낼 것은 뻥하고, 이제 일반성을 통한 추론은 기본이거니와, 인구와 지역지리에 붙는 키워드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출제 할 것이라는 평가원의 의지가 돋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지리 키워드 붙여가며 최대한 많이 외우고 주요 지역 인구 외우자. 부탁이다. 인구 외워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짚 자면 수도권 혹은 영남권 추론 문제 내면서 인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만한 선지를 낼 것 같다. 그냥 필자의 축일 뿐이니 Believe or not.

남은 기간에도 기본기에 충실하자. 기출 3개년 다시 보면서 3R 다시 챙기고 각 선생님 파이널에서 짚어주는 지엽들 다 머리 안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고 쓸데 없는 지엽에 목 매지 말자. 한지에서 지엽이라 하면 EBS에 언급해서 내가 까먹거나 몰라도 출제될 수 있는 형식 or 내용 정도다. 모두 5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항상 응원합니다.